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40)(3/11/2022)

제 3 권 내적 위로

제 29 장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송축하여야 하는가, 1-2 절

시 57:1, 3, 5, 7, 8 - 1.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5. 하나님이며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 하나님이며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 <제자> 주님,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시 113:2). 이 시험과 환난이 내게 임한 것은 주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회피할 수 없고, 오직 주께 피할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도우셔서, 이 시험과 환난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나는 환난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이 현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궁지에 몰려서 움짱달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지만 이런 시간이 내게 임한 것은(요 12:27),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지극히 낮아졌을 때,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시 40:13). 주님, 이제 주께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비천한 자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디에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내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아무리 심하게 괴롭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의 뜻을 이루소서(마 6:10). 나는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맑고 고요한 시간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그 괴로움과 고통을 인내로써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내게 자주 그러하셨듯이, 이제도 주의 전능하신 팔이 이 시험을 나로부터 들어올리셔서, 그 맹렬함을 감해 주셔야만, 나는 이 시험에 짓눌려 멸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존자의 오른손(시 77:10)이신 주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말씀과 해설: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성경에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환난 당할 때의 기도는 자신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고 행복을 누릴 때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와 찬양을 잊어 버리고 도리어 교만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인생의 형통을 경험할 때 주님께 보이는 모습과 함께 중요한 것이 환난 중에서의 모습이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드린 환난 중의 기도는 이 부분에 관한 깊은 통찰을 준다.

시편은 삶 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신앙적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성경 중의 하나이다. 그 가운데 시 57 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편 속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와 찬양은 자신이 환난 당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를 알게 한다.

(1) 삶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기도할 때이다. 다윗은 시 57:1-2 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시 57:1-2 - 1. 하나님이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은혜를 구한 다윗의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환난 중에 기도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삶의 어려움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삶의 소망을 앗아가며, 신앙생활조차 지속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의 의욕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다윗의 모습은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께 더욱 기도하라고 우리를 도전한다.

(2)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시 57:3 -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존재, 역사,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기도한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된다. 아울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악하며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진리 그 자체가 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은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 애써야 한다.

(3)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다. 시 57:5 -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형통을 경험하든 고난을 경험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극심한 환난 중에 있어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 속에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힘든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

(4)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향한 확고 부동한 믿음 위에서 있어야 한다. 시 57:7 -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고”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놓여지다,’ ‘세워지다,’ 혹은 ‘고정되다’라는 뜻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세워졌음을 고백했다. 삶이 힘들고, 마음에 낙심이 들며, 비관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소망을 잃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과 믿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옵소서.’

(5) 기도의 사람은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시 57:8 -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때의 “영광”은 ‘심령’을 의미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말은 ‘내 심령아 깰지어다,’ 혹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이 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라는 표현 역시 찬양을 의미한다. 아울러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씀은 자신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새벽에 일어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다. 시 57:9-10 -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하셨다. 기도는 곧 찬양이며, 찬양이 곧 기도이다.

환난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기도할 때이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며, 응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최종 목적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임을 분명히 안다. 기도의 사람은 응답에의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깨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한다. 환난 중에서도 순전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2. 전쟁, 테러, 질병, 기근으로 큰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많은 지역들과 백성들에게 온전한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3. 새로운 정부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조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